









# 창성군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평안북도 창성군은 앞을 보아도 명사로 불리던 그 산들이 오늘은 뒤편을 보아도 어디서나 보이는 산 사람들께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산이다. 지난날 가난과 설움의 대

다. 얼마전 우리는 공화국의 인민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에 올랐다. 글: 박시원/자막집합 사진: 김남철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창성의 역사는 오래다. 창성이란 지명유래가 성을 쌓으면서 번창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고려시에는 장정현, 창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정식 창성으로 불리워지게 된 창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산간벽지의 대명사로, 못 먹고 못 입고 못사는 고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왔다.

이러한 창성의 역사는 오래다. 창성이란 지명유래가 성을 쌓으면서 번창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고려시에는 장정현, 창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정식 창성으로 불리워지게 된 창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산간벽지의 대명사로, 못 먹고 못 입고 못사는 고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왔다.

어제는 팔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갑자튀김, 떡볶이, 떡주름 비빔밥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듯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언덕된 개건물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도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는 팔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갑자튀김, 떡볶이, 떡주름 비빔밥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듯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언덕된 개건물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도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는 팔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갑자튀김, 떡볶이, 떡주름 비빔밥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듯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언덕된 개건물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도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는 팔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갑자튀김, 떡볶이, 떡주름 비빔밥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듯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언덕된 개건물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도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는 팔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갑자튀김, 떡볶이, 떡주름 비빔밥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듯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언덕된 개건물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도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 어제날의 궁벽했던 산골군이...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창성사람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나 지모른다.

그들의 생활이 편하다고, 그런데 구두를 신고 돌밭길을 걷자니 발이 부르튼다고 하시며 아버지수령님 밤새 초신을 삼으신 못 잊을 이야기도 있고 창성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원리로 만들어낸 종이틀 거둬서 만져보고 쓸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펜을 드시고 《내 나라》라고 세번이나 글을 써보신 가슴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 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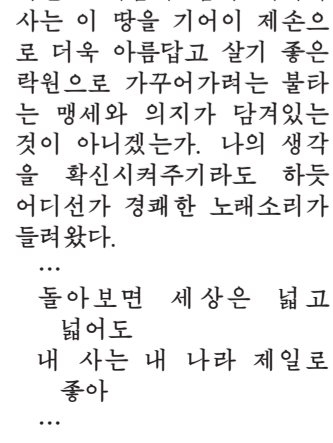
## 단상

## 내 고향의 《옥류관》

백로도 지나간 계절이라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덥기만 했다. 여기저기를 분주히 돌아다니던 필자가 시원한 국수 생각이 간절해진것은 점심시간을 가까이 할 무렵이었다.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한듯 리관책임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고향의 《옥류관》! 새겨볼수록 깊은 뜻을 담고있는 말이였다. 이 한마디말속에 이 나라 산간벽지에까지 팔고루 미치고있는 인민사랑의 정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기가 사는 이 땅을 기어이 세손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바꾸어가려는 불타는 맹세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확신시켜주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이 고향의 《옥류관》! 새겨볼수록 깊은 뜻을 담고있는 말이였다. 이 한마디말속에 이 나라 산간벽지에까지 팔고루 미치고있는 인민사랑의 정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기가 사는 이 땅을 기어이 세손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바꾸어가려는 불타는 맹세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확신시켜주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역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새겨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역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새겨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역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새겨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역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새겨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역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 새겨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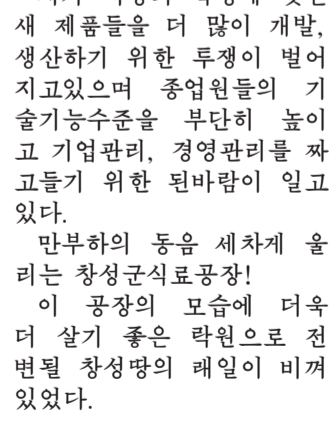
## 만부하의 동음물리는 식료공장

자로 변하여 흘러나온다. 머루, 다래, 찹쌀떡과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 파자, 과일음,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친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자로 변하여 흘러나온다. 머루, 다래, 찹쌀떡과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 파자, 과일음,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친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자로 변하여 흘러나온다. 머루, 다래, 찹쌀떡과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 파자, 과일음,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친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자로 변하여 흘러나온다. 머루, 다래, 찹쌀떡과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 파자, 과일음,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어나오고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친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 천리장성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회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성벽이 잘 남아있다.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회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성벽이 잘 남아있다.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회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성벽이 잘 남아있다.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회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성벽이 잘 남아있다.

